

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관한 청원

검 토 보 고

1. 경과

- 청 원 자 : 김경복 외 129명
- 소개의원 : 강감창(기획경제위원회)
- 접수일자 : 2017. 2. 16. (64번)
- 회부일자 : 2017. 2. 16.

2. 청원요지

- 석촌시장 노점상가는 1982년에 한을회(63개)와 양지회(65개 점포)로 관리되기 시작하여 송파구청에 노점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2010년에는 101개의 상점가와 133개 노점을 대상으로 인정시장 등록을 마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음. 이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에서는 ‘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’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4억 3천만원을 편성함으로써 노점에 철거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지난 40년 가까이 저소득 시민의 삶의 터전이 되어 온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를 요청함.

3. 청원소개의원 요지(소개의원 : 강감창 의원)

- 1978년부터 가락시영아파트 담장을 등지고 자생적으로 형성된 석촌시장 노점상가는 송파구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전기와 수도를 공급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송파구청에서 노점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관리와 통제 아래 지난 40년 간 운영되어 왔음.
- 하지만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은 ‘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’ 계획을 수립하고 노점상가의 철거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저소득 시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점상가의 존치와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4. 검토의견

- 석촌시장의 노점상가는 1908년 초반 가락시영아파트의 입주와 함께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락시영아파트담장과 석촌시장 사이의 도로에 가설물형태의 고정노점들로 약 570m에 걸쳐 조성되어 있음.

<석촌시장 노점상가 주변 평면도>



- 2015년부터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전과 아파트의 철거가 시작되면서 석촌시장 노점상가는 침체를 겪고 있으며 현재 137개소 중 22개소가 휴·폐업하여 창고로 활용되고 있고 115개소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.

<석촌시장 노점상가 영업 현황>

총계	의류	공산품	식품류(62.5%)						기타
			채소·과일	잡곡·쌀	생선	포장마차	음식(분식)	반찬	
115	16	12	19	5	7	15	9	17	15
100%	13.9%	10.5%	16.5%	4.3%	6%	13.1%	7.8%	14.8%	13.1%

- 한편, 가락시영아파트는 2018년 하반기에 재건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송파구청은 아파트 주민의 입주에 앞서 가락시영아파트와 석촌시장 사이의 도로를 확장하고 주민편의시설로 송파 책박물관, 근린공원, 초·중등학교를 조성할 계획임.
 - 현재 가락시영아파트와 석촌시장 사이의 도로 폭은 약 7~8m이나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으로부터 도로주변 토지(폭 2m)를 기부채납 받고 노점상가(약 2.5m 점유)를 정비하여 폭 10m의 도로로 확장할 계획임.
- 송파구청은 석촌시장 노점상가가 주민편의시설 조성과 도로 확대 공사 구간에 저촉되고 있어 정비가 불가피하며 100여개가 넘는 많은 점포수로 인하여 대체부지 마련 등 지원 대책의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.

- 노점은 그동안 보행환경의 침해와 불법적 영업 등을 이유로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의 잠재력 등에 주목하여 노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.
- 서울시의 경우 노점을 ‘거리가게’라고 명칭을 바꾸고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통하여 거리가게와 거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, 최근 동작구와 함께 노량진 컵밥노점들의 위치를 보행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전하고 컵밥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한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음.
- 따라서 노점을 단순 철거대상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상생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석촌시장의 노점상가 중 저소득자의 경우 생계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 청원은 의미가 있으며 본 청원의 결과를 송파구청에 이송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.